

1월 IT수출 60.1% 급증

1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0.1% 증가한 110.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수출은 글로벌 경쟁심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이후 5개월 연속 110억 달러를 넘는 수출을 기록하였다. IT무역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50억 달러가 넘는 57.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전체산업 수지 적자(△4.7억 달러)를 보전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32.5억 달러, 116.8%)는 메모리반도체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패널(24.3억 달러, 96.4%)은 TV 및 모니터용 패널 수요가 지속되면서 8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휴대폰(21.2억 달러, △3.4%) 수출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휴대폰 시장점유율(%SA '10.2)은 ('08) 25.3 → ('09.1분기) 28.0 → (2분기) 30.1 → (3분기) 31.6 → (4분기) 31.7이다.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0. 1월	2009. 12월	2009. 1월	2008. 12월	
수출	전체 산업	310.8 (47.1)	360.1 (32.8)	211.3 (△34.5)	271.2 (△17.9)
	IT 산업	110.7 (80.1)	112.9 (73.3)	69.1 (△38.7)	65.1 (△39.2)
수입	전체 산업	315.5 (26.7)	329.2 (23.9)	249.0 (△31.4)	265.8 (△21.6)
	IT 산업	53.4 (29.9)	56.9 (35.0)	41.1 (△36.6)	42.2 (△32.4)
무역수지	전체 산업	△4.7	30.9	△37.7	5.4
	IT 산업	57.4	55.9	28.1	22.9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51.9억 달러, 108.8%), ASEAN(11.0억 달러, 68.0%), 중남미(6.3억 달러, 29.1%) 등 개도국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EU(13.1억 달러, 29.7%), 일본(5.2억 달러, 33.6%), 미국(11.9억 달러, 1.3%) 등 선진 시장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31.9억 달러, 33.9%), 통신

【'10년 1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32.5	(116.8)	24.3	(96.4)	21.2	(△3.4)	110.7	(60.1)
중국(홍콩포함)	17.2	(193.5)	15.8	(134.0)	8.4	(27.6)	51.9	(108.8)
미국	2.5	(75.4)	0.3	(9.6)	5.5	(△23.8)	11.9	(1.3)
일본	1.9	(61.7)	0.6	(11.5)	0.4	(△20.1)	5.2	(33.6)
EU	2.3	(99.0)	3.4	(64.1)	3.0	(△18.6)	13.1	(29.7)

및 방송기기(4.7억 달러, 28.8%)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9.9% 증가한 5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주력 IT 제품의 높아진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패널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전방시장 수요 회복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휴대폰도 적극적인 신형시장 및 스마트폰시장 공략을 통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최대 IT수출국인 중국의 긴축 전환과 저환율 등 국내외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은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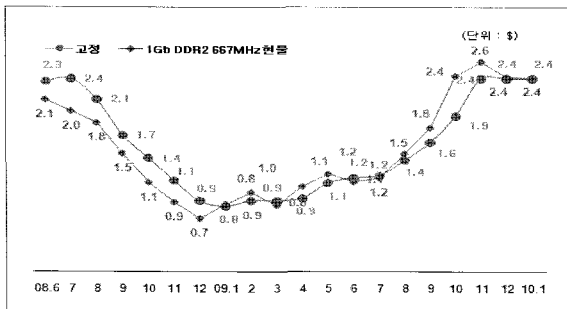
반도체:32.5억달러 수출, 전년동월대비 116.8% 증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6.8% 증가한 32.5억 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D램 수출은 윈도우7 출시에 따른 PC 수요 증가와 DDR3 전환 가속화로 전년 동월대비 206.6% 증가한 13.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낸드플래시도 중국 춘절 수요 및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카드 등 수요 확대로 전년대비 106.6%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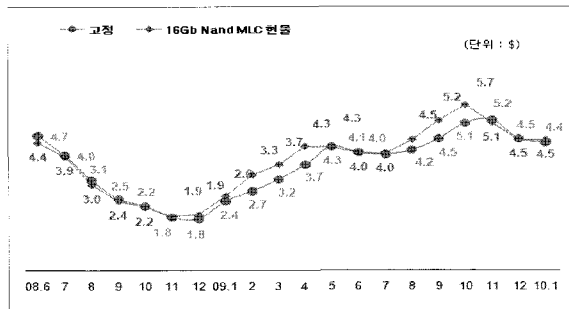
중국(홍콩포함, 17.2억 달러, 193.5%)이 반도체 수출을 견인했으며, 미국(2.5억 달러, 75.4%), 일본(1.9억 달러, 61.7%), EU(2.3억 달러, 99.0%) 등 선진시장 수출도 증가세이다.

【 D램 가격 동향 】



(자료) : DRAMeXchange

【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 】



패널: 24.3억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96.4% 증가

미국 슈퍼볼,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 강화로 세트 업체의 재고 비축 확대가 지속되었다.

중국 정부는 가전 하향정책을 기존 종료일인 2010년 6월 이후에도 지속 시행하는 한편, '10.1월 1일부터 제품 상한가 상향 및 실시 지역을 확대(칼라TV 3,500위안 → 7,000위안, 휴대폰 1,000위안 → 2,000위안, 냉장고 2,500위안 → 4,000위안, 세탁기 2,000위안 → 3,500위안 (1위안=186.9원)하였다.

패널은 전년 동월대비 96.4%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시현하였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09.7)350 → (8)350 → (9)350 → (10)348 → (11)340 → (12)340 → ('10.1)340이다.

중국(홍콩포함, 134.0%), 브라질(866.3%), 폴란드(137.1%)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패널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금액	12.4	15.0	19.4	20.2	21.1	22.4	25.0	25.5	26.3	26.6	24.9	26.3	24.3
(증감률)	(Δ40.8)	(Δ24.1)	(Δ12.7)	(Δ8.6)	(Δ7.1)	(4.0)	(5.1)	(7.8)	(4.1)	(10.3)	(34.9)	(113.7)	(96.4)

휴대폰(부분품포함): 21.2억달러 수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

사업자 마케팅 강화, 다양한 제품 라인업,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해 '09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 30%

대에 진입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였다.

휴대폰시장점유율(%SA '10.2)은 ('08) 25.3 → ('09.1분기) 28.0 → (2분기) 30.1 → (3분기) 31.6 → (4분기) 31.7이다. 다만, 신흥시장 진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의 확대로 수출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나 휴대폰 부분품(10.1억 달러, 38.8%)은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휴대폰 1위인 노키아 외주 및 해외 생산 비중('08년)은 98%, 애플 아이폰은 대만 OEM업체인 Foxconn이 전량 생산, 구글 넥서스원은 대만 HTC가 전량 생산한다.

미국(5.5억 달러, Δ23.8%), EU(3.0억 달러, Δ18.6%) 등 선진 시장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8.4억 달러, 27.6%)은 부분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중남미(1.2억 달러, 8.3%), 동유럽(1.1억 달러, 58.3%), 중동(0.4억 달러, 9.6%) 등의 수출은 증가세이다.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금액	21.9	23.6	23.9	24.4	24.9	25.1	26.2	22.8	25.1	25.8	24.6	18.4	21.2
(증감률)	(Δ21.7)	(1.2)	(Δ21.3)	(Δ18.4)	(Δ11.1)	(Δ7.4)	(Δ11.4)	(Δ18.0)	(Δ22.6)	(Δ31.3)	(2.7)	(12.8)	(Δ3.4)

칼라TV(부분품포함): 6.6억달러 수출, 전년동월대비 136.6% 증가

칼라TV는 LCD TV와 TV부분품이 수출 확대를 주도하였다. 국내 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

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평판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은 '06)25.0 → ('07)28.9 → ('08)33.8 → ('09.3Q누적)35.4이다. LCDTV가격(42인치, \$)은('09.5)983 → (6)985 → (7)994 → (8)1,187 → (9)1,075 → (10)1,020 → (11)1,040 → (12)1,007이다.

중국(홍콩포함, 96.7%), 멕시코(79.2%), 폴란드(110.7%), 헝가리(221.7%), 인도(226.2%)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은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컬러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컬러TV	2.8	3.4	4.4	4.8	3.9	4.1	4.5	4.4	5.4	4.9	4.6	5.1	6.6
부분품 포함	(Δ48.7)	(Δ38.8)	(Δ28.7)	(Δ18.6)	(Δ26.7)	(Δ22.8)	(Δ18.6)	(Δ8.8)	(Δ2.8)	(10.0)	(100.0)	(144.6)	(136.6)
LCD TV	0.3	0.3	0.4	0.4	0.5	0.5	0.5	0.4	0.5	0.6	0.6	0.6	0.5
	(Δ47.0)	(Δ33.3)	(Δ36.8)	(Δ30.0)	(Δ27.3)	(Δ2.0)	(Δ35.5)	(Δ20.9)	(Δ12.5)	(28.6)	(37.2)	(94.3)	(77.3)
PDP TV	0.2	0.2	0.2	0.2	0.4	0.3	0.2	0.2	0.2	0.2	0.2	0.2	0.2
	(Δ27.0)	(Δ20.8)	(Δ34.2)	(Δ12.4)	(8.3)	(Δ26.9)	(Δ18.4)	(Δ10.3)	(Δ29.4)	(23.7)	(43.0)	(4.4)	(29.5)
TV 부분품	2.3	2.8	3.7	4.1	3.1	3.3	3.7	3.8	4.5	4.0	3.7	4.2	5.9
	(Δ49.8)	(Δ40.4)	(Δ27.5)	(Δ17.7)	(Δ28.6)	(Δ24.4)	(Δ15.2)	(Δ7.2)	(1.6)	(11.1)	(123.2)	(175.3)	(152.0)

중국(홍콩포함):51.9억달러 수출, 전년동월대비 108.8% 증가

반도체(17.2억 달러, 193.5%), 패널(15.8억 달러, 134.0%) 등 전자부품 수출이 중국 IT수출을 견인하였다.

휴대폰(8.4억 달러, 27.6%)은 부분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TV부분품(0.6억 달러, 101.7%), HDD(0.5억 달러, 70.7%)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금액	24.8	29.9	33.9	36.5	37.5	41.4	46.1	46.8	51.3	51.4	50.3	51.5	51.9
(증감률)	(Δ39.8)	(Δ10.7)	(Δ23.5)	(Δ16.7)	(Δ13.6)	(Δ4.8)	(0.7)	(3.8)	(11.2)	(14.4)	(49.7)	(22.2)	(108.8)
중국	18.7	23.5	27.4	29.0	29.4	32.4	36.1	36.5	40.4	39.8	38.9	41.2	41.6
	(Δ43.6)	(Δ12.6)	(Δ22.9)	(Δ16.9)	(Δ14.2)	(Δ5.2)	(2.3)	(4.7)	(13.9)	(14.6)	(54.4)	(32.8)	(122.3)
홍콩	6.1	6.4	6.6	7.4	8.1	9.0	10.0	10.2	10.9	11.6	11.4	10.3	10.3
	(Δ24.0)	(Δ3.2)	(Δ26.0)	(Δ16.0)	(Δ11.4)	(Δ3.3)	(Δ4.4)	(0.6)	(1.9)	(13.8)	(35.4)	(87.7)	(67.6)

미국: 11.9억달러 수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반도체(2.5억 달러, 75.4%), 패널(0.3억 달러, 9.6%) 등 전자부품이 對미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 수출(5.5억 달러, Δ23.8%)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은 확대되었다.

셋탑박스(0.1억 달러, 350.3%), TV부분품(0.1억 달러, 26.8%), 프린터(0.2억 달러, 21.5%), HDD(0.1억 달러, 16.9%) 등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1월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9.9% 증가한 53.4억 달러이고, IT수입은 '09.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품목별로는 IT경기 회복에 따라 반도체(22.9억 달러, 28.3%), 패널(4.4억 달러, 46.8%), 접속부품(2.5억 달러, 61.1%) 등 전자부품(31.9억 달러, 33.9%)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6.7억 달러, 13.5%), IT응용·기반기기(6.8억 달러, 26.8%), 의료정밀광학기기(4.4억 달러, 21.8%), 전기장비(1.8억 달러, 53.5%) 등도 증가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무선통신기기(부분품 포함, 3.4억 달러, 31.8%) 수입도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17.4억 달러, 27.1%), 일본(7.4억 달러, 28.2%), 대만(6.6억 달러, 66.3%) 등 주요 수입국 모두 증가하였다.

IT수지는 57.4억 달러 흑자로 전체 산업 적자(Δ4.7억 달러)를 보존(품목별) 휴대폰(18.5억 달러), 반도체(9.6억 달러), 패널(19.8억 달러) 및 컬러TV(6.5억 달러)는 흑자 기초를 유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은 '96년 이후 사상 최대 월간 흑자인 3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EU는 9.8억 달러 흑자, 미국은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對미국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금액	11.8	12.5	12.4	14.3	14.5	14.0	14.5	13.0	13.3	13.6	13.6	12.3	11.9
(증감률)	(Δ7.0)	(4.3)	(Δ20.2)	(Δ15.1)	(1.7)	(Δ3.1)	(Δ8.5)	(Δ9.3)	(Δ15.9)	(Δ17.0)	(15.4)	(25.3)	(1.3)